

익산시, SNS 홍보 능력 탁월

'2024 올해의 SNS'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각각 최우수상 인스타그램 도달 수 4배·유튜브 구독자 30% 등 고속 성장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익산시 소통 창구 운영 전략이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익산시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최우수상 2개를 거머쥐었다.

'올해의 SNS'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시상하는 대회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익산시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익산시는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콘텐츠와 소통 중심 운영을 통해 SNS 계정의 성장을 이루

고, 시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 인스타그램은 짧은 영상이나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전달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블로그는 매체 특성에 맞게 지역 관광과 문화, 정책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기획 기사 형태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익산시는 블로그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공식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실제 익산시가 운영하는 공식 SNS는 올해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짧은 영상 형식인 릴스

를 100여 개 이상 제작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조회 수와 관계없이 게시물을 본 사람의 규모인 '도달 수'가 4배 이상 증가했고, 팔로우는 5,000명 이상 늘었다.

유튜브 또한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 제공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구독자가 3,000명 이상 증가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전년 대비 2만 명 이상 증가한 8만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시의 자체 제작 콘텐츠 외에도 '익산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활약이 도움이 됐다. 기자단은 익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양질의 영상과 사진, 정보를 생생하게 시민들과 공유했다. 시는 남은 연말까지 인플루언서와 소셜미디어 기자단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디지털 소통 강화를 박차를 가해 익산시를 더욱 쉽고 흥미롭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창의적 시도를 통해 시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공식 SNS는 이제 익산시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문화 관광과 행사, 새로운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내년에 도 공식 SNS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 제10기 소셜미디어기자단'을 모집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열려

'긍정적인 자녀 양육 행복한 군산' 주제로...선 '자녀 양육법' 특강

군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지난 20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였다.

특히 이날 이뤄진 행사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언식도 함께 열렸다. 참여자 10명이 아동권리감시단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별을 터치하자 조명이 켜졌고,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선언식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군산시, 아동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새삼 되새겼

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자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

기념식은 박성광 온라인 태권도 '온나래 시범단'의 태권군무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행복한 가정, 긍정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기수 선'의 자녀 양육법 관련 부모학교 특강을 끝으로 기념식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 아동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중소형 폐가전 부문 우수성 인정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서 환경부 장관상

자원 순환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익산시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익산시는 21일 '2024년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의 중소형 폐가전 부문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평가는 대형 폐가전 분야와 중소형 폐가전 분야로 진행됐다. 중소형 폐가전 분야는 방문수거 체계 구축, 기반 확대 등의 항목에 대해 서면·현장 평가가 이뤄졌다.

익산시는 '내 집앞 맞춤 수거 서비

스'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 집앞 맞춤 수거 서비스'는 공동주택과 마을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면 수량과 관계없이 중소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는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에서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과 함께 배출해야만 방문수거가 가능했다. 이에 익산시는 부작정한 배출을 막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46개소에서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내 집앞 맞춤 수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RISE 성공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계 '맞손'

국립군산대학교, RISE 전환 대응 지역협력 발전전략 포럼 개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대학 내 국제회의장, 이노테크홀, 대회의실 등에서 'RISE 전환 대응 지역협력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전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산업계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라이즈는 그간 중앙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교육부의 대학지원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현재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이번 포럼은 대학, 산업계, 관련 기관 등에서 총 74명의 패널과 3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포럼을 △산업체 I (이차전지 등) △산업체 II (AI·SW) △대학구성원(교원, 직원, 조교) △대학구성원(학생) △창업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시민사회 8개 세션으로 나누어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오정근 기획처장은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 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오는 27일에는 △지자체 세션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활성화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 개최...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익산시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21일 '2024년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기청소년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통합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등 청소년 안전망 필수 연계기관을 포함한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실무위원회 연계를 통해 익산

월드휴먼브릿지(대표 정요셉)의 장학금 240만 원과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성자)의 장학금 200만 원 기탁으로 위기청소년 12명이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익산경찰서에서 후원한 9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학교밖청소년 3명에게 지원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에서 제공한 식품과 의류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됐다.

청소년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화(1388) 또는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852-138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벌레로 벌레 잡는

'천적 농법' 지원 큰 호응

21일 군산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자 천적 농법을 지원한 것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천적 농법은 주요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방제 효과가 있는 천적인 뿌리리더를 투입해 해충의 밀도를 줄이고 작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뿌리리더에는 토양 속에서 활동하는 작은뿌리파리 유충, 총채벌레(번데기) 등의 작은 곤충과 응애류를 잡아먹는 천적이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천적 증식실을 작년 11월 말에 조성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보급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11ha 면적에 천적을 공급했다.

시는 천적농법 지원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농약과 약제 저항성 증가로 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문화유산 야행'

피너클 어워드서 은상 수상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문화유산 활용 축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20일 진행된 세계축제제협회의 '제18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문화유산활용 프로그램과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에서 은상을 받으며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피너클 어워드'는 축제의 율리피크로 불리며 국내 대표 축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대회로 익산시는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수상으로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국내 대표 축제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 발전의 우수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